

# 삼성 '기술'·SK '기업가치'·LG '고객가치' 강화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재계가 위기극복을 위한 새 전략 짜기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SK,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전략회의를 가졌다.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은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다. 기업 수장들은 '위기상황'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해법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 수장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법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뉴스1

삼성 "기술 선점으로 시장변화 대응" 중소기업과 상생 생태계 육성 강조  
SK, 가치 기반 경영시스템 재구성  
LG, 정기회의서 고객가치 강화 논의

## ●삼성, 긴급 사정단 회의 이어 전략회의

삼성전자는 21일부터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시작했다. 21~23일에는 모바일과 가전을 담당하는 DX부문, 27~29일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전략회의를 갖는다.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글로벌 전략회의를 여는 것은 4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었으나, 2019년부터는 코로나19 등으로 하반기에만 개최했다. 4년 만에 상반기 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 앞서는 20일에는 긴급 사정단 회의도 가졌다. 회의에선 글로벌 시장 현황 및 전망, 사업 부문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전략사업 및 미래 먹거리 육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제 정세와 산업 환경, 글로벌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변화의 흐름을 읽고, 특히 새로운 먹거리를 잘 준비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술'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 관련해 "기술로 한계를 돌파해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 우수인재 확보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생태계 육성에도 힘 쏟아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LG, 3년 만에 상반기 전략보고회 개최

SK는 17일 '2022년 확대경영회의'를 가졌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장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관계사 CEO(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 위기 상황 인식을 함께 하고 SK의 새로운 경영시스템 구축과 신사업 모색 방법론 등에 대해 외부 투자전문가, 학계 인사 등과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는 게 SK측 전언이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만들어

실행하고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는 기업 가치와는 연계가 부족했다"며 "기업 가치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파이낸셜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기업 가치 기반의 새로운 경영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스토리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 뿐 아니라 고객과 투자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목표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스토리를 말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국내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파이낸셜 스토리 등 경영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위기 극복은 물론 기업 가치 제고에 가능하다는 것이 최 회장의 지적이다.

LG도 23일 사정단 회의를 열었다. 구광모 회장과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계열사 사정단이 참석했다. 분기별로 열리는 정기 회의로, '고객 가치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앞서 지난 달 30일부터 계열사 경영진들과 중장기 사업전략을 논의하는 '전략보고회'도 열고 있다. LG가 상반기 전략보고회를 연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구 회장은 각 계열사가 마련한 분야별 전략방안을 경영진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중장기 투자가 계획한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도 7월 중 글로벌 권역본부장 회의를 열고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삼성, 업계 최소 2억 화소 이미지센서 공개

'아이소셀HP3', 기존보다 12% 줄인 0.56μm 픽셀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인 0.56μm 크기 픽셀 2억 개를 탑재한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HP3'(사진)를 공개했다. 1/1.4인치 규격의

아이소셀 HP3는 픽셀 크기를 기존 제품보다 12% 줄인 0.56μm로 설계해 모바일기에 탑재할 카메라 모듈 크기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연내 양산할 예정이다.

HP3에는 2억 개 화소 전체를 활용하는 위상차 자동 초점 기술 '슈퍼 QPD'가 적용됐다. 또 초당 30프레임 8K 초고해상도, 120프레임 4K 고해상도 영상을 지원해 영화 촬영 수준의 '시네마 카메라' 성능을 구현했다. 특히 사진 촬영과 동일한 화각에서 초고해상도 8K 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임준서 시스템LSI사업부 센서사업팀장(부사장)은 "삼성전자는 2019년 업계 최초로 1억 화소 이미지센서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 2억 화소 이미지센서도 최초로 출시하는 등 초소형 픽셀 기술력을 통해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업계 최소 픽셀 크기의 HP3 신제품을 통해 사용자 경험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 이마트-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대전' 진행

이마트가 7월6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사진)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의 할인 지원에 이마트의 자체 할인을 더해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먼저 29일까지 1주차 행사로 오징어, 고등어, 참조기, 전복, 장어, 멸치 등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40%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 30일부터 7월6일까지 2주차 행사에서는 제주 은갈치, 고등어, 굴비, 바지락, 새우, 멸치 등을 할인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세우 이마트 수산팀장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앞장 서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했다.

## NS홈쇼핑, 오늘 '셀럽 블랙테라피 샴푸' 방송



NS홈쇼핑이 24일 오후 7시 35분 LG생활건강의 '셀럽 블랙테라피 샴푸'(사진)를 방송한다. 새치커버, 탈모증상완화, 헤어볼륨까지 올인원케어 가능성이 있다. 아미노산 성분이 탈모 샴푸 특유의 푸석함과 뻣뻣함을 해소하고, 영양을 보충해 부드럽고 윤기 있는 모발로 가꿀 수 있다. 새치샴푸 본품(450ml) 3개와 소용량 1개, 새치커버 트리트먼트 소용량(50ml) 1개로 구성했다. 구입 후 상품평 작성 시 트리트먼트 본품(150ml)을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연다.

## "자정까지 주문하면 익일 바로 배송"…11번가, '슈팅배송' 오픈

기존 서비스 리뉴얼…제품군 늘려 우주패스 고객은 무료반품 혜택 네이버 등 '빠른 배송' 경쟁 치열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들의 '빠른 배송'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한편 제품군을 늘리고,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1번가는 23일 '슈팅배송' 탭을 새롭게 오픈했다. 평일 자정까지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익일 배송 서비스다. 기존의 '쇼킹배송'을 리뉴얼해 빠른 배송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슈팅배송 탭에서는 매일

새로운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데일리 특가'와 11번가 MD(상품기획자)가 추천하는 할인 상품, 각 브랜드와 카테고리 별 인기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구독 상품인 '우주패스'(월 4900원부터) 가입 고객은 슈팅배송 상품 구매 시 무료반품 혜택이 적용된다. 11번가는 슈팅배송 오픈을 기념해 7월부터 매일 오전 11시 반값딜, SK페이포인트 증정하는 출석체크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11번가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구매데이터를 분석해 빠른 배송에 대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직매입으로 확보했다. 화장지와 물티슈 등 생

활용품부터 다양한 간편식 제품들은 물론, 소형 선풍기와 공기청정기, 제습기, 청소기 등 소형 가전,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음향가전 및 다양한 디지털 제품을 슈팅배송으로 판매한다. 11번가는 올해 새롭게 확보한 인천과 대전 지역 물류센터와 함께 판매자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슈팅배송 가능 상품과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다.

경쟁사들도 빠른 배송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대한통운과 협업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내일도착' 서비스에 이어 지난 5월부터 육아, 생필품 등 일부 카테고리 중심으로 오전 10시까지 주문하

면 당일 배송이 가능한 '당일배송' 테스트를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새벽배송 테스트도 진행한다.

지난 2월 새벽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G마켓·옥션은 신선식품 외에도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등으로 제품군을 다양화했다. 스마일클럽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오후 8시 이전까지 새벽배송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7시 전에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빠른 무료배송은 물론 쿠팡플레이와 전용할인 등을 제공하는 쿠팡의 '쿠팡오우' 회원은 900만 명을 넘어섰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메가푸드마켓 리뉴얼

간편식·델리 늘려... '고객 경험' 강화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이 23일 메가푸드마켓 9호점으로 리뉴얼 오픈했다. 대전 유성점은 영업면적 약 2만3000㎡ 규모로 전국 홈플러스 매장 평균 대비 2배가량 크다.

이런 초대형 매장의 특성을 살려 '세상의 모든 맛이 홈플러스에 다 있다'는 테마로 상품 차별화와 쇼핑 최적화를 구현해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강점인 '고객 경험'을 강화했다. 특히 간편식과 델리(즉석식품) 등 1, 2인 가구에 특화된 상품 구색을 늘렸다. 앞서 선보인 8곳의 메가푸드마켓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 완성도를 높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대전 유성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메가푸드마켓이라 의미가 크다"며 "올해 서울, 경기, 호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다이닝스트리트(위)와 푸드투고.

남, 영남권 등 전국 주요 매장을 선정해 메가푸드마켓으로 추가 리뉴얼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 롯데리아, 한우불고기버거 라인업 신제품 출시

더블한우불고기·트리플머쉬룸 선택

롯데리아가 대표 메뉴 불고기버거 출시 30주년을 맞아 한우불고기버거 라인업을 강화한 K-버거 신제품 2종(사진)을 내놓았다.

한우 패티 2장으로 구성된 '더블 한우불고기버거'와 양송이 버섯 원물 약 40%와 트리플 오일을 넣은 크림소스를 가미한 '한우 트리플머쉬룸버거'다. 저온 12시간 발효 통밀 효모를 사용한 브리오쉬 번을 사용했다. 또 한우협회 인증 마크인 '한우 불도장'을 번에 각인해 특별함을 더했다.

회사 측은 "불고기를 테마로 한 시리즈로 한국 전통 패스트푸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내산 한우를 패티 원료로 하는 등 혁신 메뉴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한편 롯데리아는 추곡선수 손흥민과 모



텔 계약을 연장하고 30일 '메이드 인 코리아'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새 CF를 공개한다. 지난해 손흥민과 함께 한 대국민 응원 메시지 캠페인이 주목받은 만큼, 올해도 손흥민을 통해 브랜드 강화를 노린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